

농협, 화학비료 · 농약 대폭 인하

비료 16.8%에 농약은 평균 5.7% ... 영농비 1735억원 절감효과

농협이 화학비료 및 농약 가격을 인하한다.

농협은 농민들의 영농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주요 영농자재인 화학비료와 농약의 가격을 인하한다고 1월 18일 발표했다.

농협은 “화학비료는 2010년 대비 평균 16.8%, 농약은 평균 5.7%를 각각 내렸다”고 말했다.

화학비료 인산칼리맞춤1호 1포대(20kg)가 1만5950원에서 1만2700원으로 20.4% 인하됐고, 농약 만냥입제 1봉지(3kg)는 1만원에서 9400원으로 6.0% 내렸다.

농협 관계자는 “가격인하로 2011년 전체 농가에서 1735억원의 영농비 절감효과가 있을 것”이라고 밝혔다.

<화학저널 2011/01/18>